

설 지났지만 ... 배추 한포기 여전히 4000원

무 1개 2460원, 양배추 5083원 ... 명태도 2.9% 올라

정부 물가잡기 실패 ... 밥상물가 고공행진 주부들 한숨

설이 지났는데도 배추와 무 등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치솟았던 농축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성수기인 설이 지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계란 수입, 배추·무 등 정부 비축 물량 공급 등으로 물가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는 셈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

(KAMIS)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배추(한 포기 상품·3990원) 가격은 설 직전인 지난달 26일(3987원)과 비교해 오히려 0.08% 더 올랐다.

여전히 평년(2095원)의 두 배(90.5%↑) 수준이다. 양배추(5083원)도 설 전보다 2.3% 정도 더 비쌌다. 평년(2736원)보다 85.8%나 오른 상태다.

당근(무세척 상품 1kg·5694원)은 1.5% 떨어졌지만, 아직 평년의 2.3배(128.9%↑)에 이르고 2.8% 하락한 무(한개 상품·2460원)도 여전히 평년

의 두 배(88%↑)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마늘(간마늘 국산 1kg·1만419원), 양파(1kg 상품·2294원)는 설 이후 각각 4.1%, 6% 더 뛰었고, 대파(1kg 상품·3713원)의 경우 불과 0.9% 떨어졌을 뿐이다. 이들 양념류 채소들은 현재 평년보다 각각 42.7%, 21.6%, 39.5% 비싸다.

채소류 가운데 설 이후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은 각각 19.9%, 17.1% 하락한 애호박(한개 상품·1657원)과 딸기(100g 상품·1306원) 정도뿐이다.

축산물 물가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우 갈비(100g 1등급·4900원)와 한우 등심(100g 1등급·7613원)의 설 이후 하락 폭은 각각

2.5%, 0.2%에 그쳤다. 여전히 평년보다는 13.4%, 13.9% 높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급등한 계란(특란 30알 중품·8596원)은 미국산 등 계란 수입에도 불구하고, 1주일 전보다 불과 3.4% 하락했을 뿐이다. 평년보다 52.6% 비싼 것으로, 좀처럼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명태(냉동 한 마리 중품·2410원)는 설을 지나 2.9% 더 올랐고, 물오징어(한 마리 중품·3339원)와 굴(1kg 상품·1만6529원)은 1.2%, 7.2%씩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이들 품목의 가격은 평년보다 16.2%, 25.1%, 16.3% 비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NH농협은행, 6급 신규직원 상반기 200명 채용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 구현을 위한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200명 규모의 6급 신규직원 채용한다.

이번 신규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Open) 채용으로 오는 10일까지 농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3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번 채

용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하여 출신학교(고교 또는 대학교) 소재지 또는 현재 주소지 권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출신학교 소재지 지역 지원자를 우대한다.

특히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림농협 구현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

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3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역본부, 농협은행 및 계열사 임직원과 지역농협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했다.

〈사진〉

지난 2일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협동과 혁신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농업인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 타파와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청

탁지법 준수를 통한 부패근절 및 청렴한 농협 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전 임직원들은 '청렴한 농협,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실천의지를 결의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협의 윤리경영은 농업인과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농심이 살아있는 농협, 농업인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입맛 돋우는 싱싱한 '봄동'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봄동을 들어보이고 있다. 봄동은 비타민과 칼슘, 인이 풍부해 빈혈을 없애주고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봄동을 들어보이고 있다.

봄동은 비타민과 칼슘, 인이 풍부해 빈혈을 없애주고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농산물 판매 시군연합사업단 역할 토론회

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최근 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전남 농산물 판매의 주역인 시군연합사업단을 대상으로 전남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산지유통조직 역량강화와 시군연합사업단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사업은 소규모 농가 조직화와 지역농협을 묶어 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농협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남 관내 16개 시군에 통합마케팅조직인 연합사업단(11개소)과 조합공동사업법인(5개소)을 육성하고 판촉활동을 지원해 오

고 있다.

또 전년도에 연합사업 조직을 통하여 판매된 농산물판매액(발작물, 과실 등)이 2천 8백여원을 달성한 이후 2017년에는 3천여원을 기필 달성하고, 튼튼한 산지유통 120개(현재 80개) 조직(공선출하회)을 육성하여 연합사업단의 원예농산물 취급비율을 50%(현재 25%)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흥묵 본부장은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민들이 맘 흘려 생산한 우수 농산물이 소비지에서 인정받아, 제값 받고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트럼프 불확실성 우려

변동성 장세 지속

대형주 중심 시장 이어질 듯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장중 200만원에 도달하며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상승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시장의 호황으로 지난해 4분기에만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주주 가치향상을 위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사주소각과 높은 현금배당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는 2017년 반도체시장에 대해 사상최대의 호황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의 급격한 수요 증대로 D램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도체호황이 이어지면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2025'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강력한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반도체시장 진입을 선언했지만 기존 IT산업대비 고도화된 기술격차로 단기간 국내업체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시장 진입은 국내반도체 장비업체에게는 추가적인 매출기회가 될 수 있어 삼성전자 주가상승이 부담스럽다면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업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가 2100포인트에 근접하며 박스권 돌파시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등 반도체와 화학업종 대표주의 상승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체감지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런 대형주중심의 시장 흐름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 산업의 호황과 50~6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유가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코스닥시장을 바라볼 때 개별기업의 실적이나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장진입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실적모멘텀이 약하고 종목당 거래대금 규모가 제한적인 코스닥시장의 경우 수급에 따른 개인들의 몰림현상과 주가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닥지수 하락은 제약바이오의 모멘텀부재, 중국의 사드보복, 실적부담, 대산테마주의 실망매물 증가 등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있는 수급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관심을 가질 이슈로는 6월 제출예정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이다. 예산안제출로 트럼프정책노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재정지출확대와 감세정책인데 이는 적자재정 편성이 필연적이며 의회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적극적인 발언과 행정명령 등으로 이어진 광복행보에 숨죽이고 있던 의회를 비롯한 미국내부의 정치세력과의 갈등이 본격화 될 수도 있으며 트럼프행정부의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트럼프노믹스가 상당부분 후퇴한다면 당선 이후 우려보다는 기대를 선반영했던 증권시장에선 정책 및 정치 불확실성이 새로이 고조되고 단기조정의 발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3년안에 승부 납니다!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